



주님 부활 대축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제 1 독 서 사도 10,34ㄱ,37ㄴ-43

화 답 송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겨워하네.

제 2 독 서 콜로 3,1-4

복 음 요한 20,1-9

주일 진레

기이한 부활 선포, “불잡지 말라”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텅 빈 성베드로 광장을 프란치스코 교종이 걸어간다. 어둠이 깔리고 비까지 내려 더 공허한 광장에 홀로 선 여든네 살 노 사제의 기도가 적막을 흔든다. “당신께 간절히 청합니다. 잠을 깨십시오 주님!” 을씨년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거대한 성전 앞에 선 그의 모습이 예수가 죽어 묻힌 빈 무덤을 홀로 지키던 마리아 막달레나와 겹친다.

다. 마리아도 그날 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며,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미래에 몸서리치며, “우리는 모두 길을 잃었습니다. 잠을 깨십시오 주님,” 하며 흐느끼고 있었을까.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죽기 전 그이의 말은 마리아에게 무슨 의미였을까. 희망이었을까,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부질없는 위로였을까.

길고 긴 밤이 지난 부활 새벽, 예수는 마리아 앞에 살아 돌아와 모습을 드러낸다.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이 기적의 순간은 그러나 부활 성야 미사처럼 극적이고 웅장하지 않다. 그이는 평범하고 남루한 동산지기 사내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던 마리아는 심지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서야 그의 존재를 알아챈 그녀는 “선생님” 하고 응답하며 그를 붙잡기 위해 손을 뻗는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이가 살아 돌아왔다면, 간절한 기도의 결과가 눈 앞에 있다면. 그러나 그이의 반응은 낯설고 어색하기 그지없다. 그이는 안타까운 마리아의 손을 거부하며 말한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요한 1, 17)

무덤 앞을 밤새 지키던 마리아에게, 또 그의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던 오늘 우리에게 그이가

처음 전네는 부활 메시지는 실망스럽다. 고통과 죽음이 이렇게 끝도 없이 세상을 덮고 있는데, 주일 전례에 참여하지 못한 지 어느새 두 달이 가깝고, 고해 성사와 영성체도 하지 못한 채 성주간을 보내고 부활을 맞는데, 이 폭발할 듯한 공포와 무력감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간절히 붙잡고 싶은데, 그이는 말한다. 붙잡지 말라고. 이 기이한 부활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앙을 겪고 있는 세상은 격변을 예고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감염증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감염증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이 결코 같지 않으리라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그 변화는 정치, 경제, 노동, 교육, 환경, 외교, 그리고 일상에서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관계를 이루는 방식에까지 삶의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아우르며 이미 일어나고 있다. 종교 공동체에 요구되는 변화는 더욱더 본질적이다. 전 지구적 위기를 겪으며 사회가 종교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고통과 죽음을 이길 처방이나 기적, 지혜가 아니다. 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음이 무엇인지 세상은 더이상 궁금하지 않다. 세상이 종교에 요구하는 것은 단지 “모이지 말라”는 것이다. 종교의 정체성과 존재 근거를 흔드는 이 “모이지 말라”는 세상의 요구가 “붙잡지 말라”는 그이의 요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묻는다.

파스카는 죽음이 새 생명으로 변화하는 신비다. 예수의 삶과 부활 사이에는 죽음이라는 단절이 있다. 죽음 이전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은 다르다. 살아 숨쉬던 명징한 진리, 예수가 죽음을 거쳐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그이는 우리가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진리로 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부수어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 삶 안으로 돌아왔다. 부활 이후의 그이는 오로지 우리의 삶을 통해 존재한다. 데레사 성녀의 고백처럼 그이는 우리의 팔과 다리를 통해 움직이고, 우리의 눈과 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 그러므로 빈 무덤 앞, “붙잡지 말라”는 그이의 말

은 우리가 그를 믿고 그의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오늘, 감염증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들려오는 그 부활 선포는 교회가 겉으로 보여지는, 붙잡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본질로, 생명으로, 그이가 살아 숨쉬는 삶의 한가운데로 돌아가야 한다는 준엄한 요구다. 각 교구들이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잠정적으로 미사를 중단한 것은 단지 교회가 사회의 요구에 협조했기 때문에 잘한 일이 아니라, 건물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의 요구를 따랐기 때문에 잘한 일이다. “모이지 말라”는 세상의 요구 속에서 “붙잡지 말라”는 그이의 요구를 들었기 때문에 잘한 일이다. 나아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사진과 노래와 이야기로, 공간과 장소의 한계를 넘어 서로 만나고 위로하는 신자들과 사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감염증이 만들어 낸 죽음의 공포와 단절을 넘어, 껍데기를 벗고 삶으로 깊숙이 살아 오는 그이를 본다.

감염증이 걷힌 후 더욱 명확해 질 세상의 변화 속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는 이렇게 “붙잡지 말라”는 그이의 청을 따르는 교회라고 나는 믿는다. 제도와 형식과 절차를 붙잡고 권위를 세우는 교회, 세상 저편의 천국을 담보 삼아 신자들을 모으는 교회, 영성적, 도덕적 편협에 묶여 우리와 너희를 가르는 교회는 죽음 이전의 삶에 머무는 교회다. 스스로 성곽을 허물고 세상으로 들어와 수천 수만의 연약한 생명들을 보듬고 이어주는 교회, 넉넉하고 결이 성글지만 질기고 튼튼한 바구니와 같은 교회가 파스카의 신비를 살아가는 교회다. “교회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천명하지 않고, 교회도 부족하고 혼란스러우니 당신들의 팔과 다리와 눈과 입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말이다. 가르치고 훈육하고 벌주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와 세상의 폭력과 분노와 외면 속에 탄식하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 그이를 발견하고, 그렇게 상처 받은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교회, 그러나 그이가 그랬듯 삶으로 살아 오는 교회 말이다.

사도행전 읽기 5

염철호 요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스테파노 순교와 함께 교회는 큰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 인근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저자 루카는 이를 계기로 제자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전하는데(8,4), 이는 사도 1,8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나아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 바 있습니다. 스테파노 순교 때까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온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이 모든 일이 제자들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대자들의 박해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박해를 일으키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는 그리스도의 적들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적들의 박해를 통해서도 당신 일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박해자 바오로

루카는 바오로, 곧 사울도 교회를 없애 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 감옥에 넘긴 박해자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바오로 갈라 1,13에서 바오로 자신도 증언하는 바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바오로는 유다교를 열심히 신봉하며 조상들의 전통을 충실히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유다교의 근간을 흔드는 듯 보이는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오로의 박해에 대한 사도행전의 증언이 조금은 과장되어 보입니다. 곧, 바오로가 사도행전이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악한 그리스도교 박해자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째, 갈라 1,22에서 바오로는 회심 뒤 삼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때 유다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었다고 전합니다. 어떻게 그토록 강렬하게 박해하던 박해자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둘째,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싫어하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리사이파였던 바오로가 사두가이파의 수장인 대사제에게 가서 박해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을까요? 셋째, 대사제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된 영역에서만 그 권한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사제가 시리아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까지 사람을 잡아 오라고 박해자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성경 이야기들도 우리네 이야기들과 똑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이야기 전개를 위해, 또 설득을 위해 충분히 특정 소재들을 과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방금 언급한 박해 문제에 관해서도 루카가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개를 위해 조금 과장했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루카 사도는 뛰어난 이야기꾼이기에 자신이 전해 들은 바들을 흥미진진하게 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오로가 박해를 어떤 방식과 강도로 수행했느냐가 아니라, 바오로가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 섰음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바오로도 자신의 편지에서 자신이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고 여러 번에 걸쳐 고백합니다.(1코린 15,8-9; 갈라 1,13-14; 필리 3,5-6) 그리고 이런 자신을 두고 바오로는 항상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 또는 ‘사도로 불

릴 자격조차 없는 자로 자처하곤 했습니다.(1코린 15,9) 다만,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유명한 박해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복음선포(8,4-25)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는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공생활하실 때 이미 이방인들도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전합니다. 또한 요한 복음서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요한 4,1-42) 하지만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공생활하실 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루카 9,51-56) 복음서들은 이처럼 서로 다른 증언들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증언이 맞는 것일까요? 그 답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되돌아가 보지 않는다면 결코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복음서들은 이에 관한 다양한 증언들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복음을 선포한 인물은 필리포스였습니다. 그는 열두 사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사도들이 식탁 봉사를 위해 뽑은 일곱 부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6,5) 그런 필리포스가 사마리아 고을로 내려가 더러운 영을 쫓고 중풍병자와 불구자를 낫게 하는 등 성공적으로 복음선포를 해 나갑니다. 이렇게 보니 당시 부제들의 역할이 단순한 식탁 봉사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어찌 되었건 사마리아 고을에 살던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필리포스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와서 안수로 성령을 주는 것을 보고는 큰돈을 바치며 자신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시모니야’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하느님이 주는 카리스마를 돈으로 사고파는 모든 시도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경고를 들은 시몬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사를 돈으로 사고팔 수 없음을, 그분이 주는 은사는 항상 무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필립보와 에티오피아 내시, 가자로 가는 길에서(8,26-40)

베드로와 요한,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한 뒤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나타나 이스라엘과 이집트 국경 지역에 있던 가자로 내려가라 명합니다. 천사의 명을 받고 일어나 길을 나선 필리포스는 길 위에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던 에티오피아 여왕 칸타케의 내시를 만납니다. 칸타케라는 말은 에티오피아어로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왕은 1열왕 10,1-10에 등장하는 스바 여왕의 후손으로 여겨지는데, 에티오피아 전승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다고 전합니다. 이후 에티오피아에도 유대인들이 생겨났는데,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에티오피아 출신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왕의 내시는 이사 53,7-8, 곧 주님의 수난 받는 종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필리포스는 내시에게 다가가 그 구절이 말하는 주님의 수난 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혀줍니다. 그러자 필리포스의 말에 감명받은 내시는 필리포스에게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에티오피아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 필리포스는 필리스티아인들의 도시였던 아스돗과 로마 총독이 머물던 바닷가의 카이사리아에까지 지중해 바닷가 지역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세계로 한 발 한 발 퍼져갑니다.

마산교구 실시간 방송 미사 안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bit.ly/성당 유튜브 검색: 마산교구

일 시	전 레	주 레
4월 12일(주일) 10:30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교구장 배기현 주교
4월 19일(주일) 10:30	부활 제2주일 미사	총대리 최봉원 신부
4월 26일(주일) 10:30	부활 제3주일 미사	진주지구장 신은근 신부
5월 3일(주일) 10:30	부활 제4주일 미사	사목국장 이원태 신부

▶ 당일 생중계 이후에도 교구 유튜브 채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청하는 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